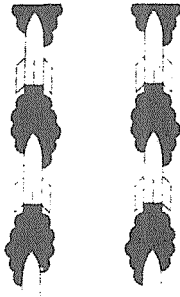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93. 2. 2~2. 28〉

- 2. 2 : 체신부, 통신사업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고 고도화·다양화되고 있는 이용자의 욕구를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통신사업자에 3~5년간 서비스 독점권을 부여하는 「신규 서비스개발 장려제도」를 도입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.
- 2. 3 : 상공부,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,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23.4% 늘어난 5,330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1,000~1,50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.
- 2. 4 : 과기처,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(G7 프로젝트)에 4,051억원을 투입, 모두 177개에 이르는 세부과제연구에 들어가는 등 G7프로젝트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.
- 2. 5 : 체신부, 국가기간전산망 운용의 효율화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「정부방시시스템상호 접속규약표준」 등 전산망에 관한 국가표준 4건과 전산망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서 등 4건을 확정 고시했다고.
- 2. 6 : 관세청, 중소제조업체용 수입시설제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납부기간을 관세액이 2,000만원 이하일 경우 3년으로 5,000만원 이하는 4년, 5,000만원 초과시는 5년으로 개정했다고.
- 2. 10 : 중진공, 중소기업창업 자금을 480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설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(대출기간 8년 이내 연리 9%), 운전자금은 2억원 이하(대출기간 3년 이내 연리 9%)의 조건으로 구분 지원키로 했다고.
- 2. 11 : 중진공, 중소기업의 개발제

- 품에 대해 관련수요 공공기관 및 단체에 우선구매를 요구하는 등 판로확보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.
- 2. 13 : 상공부,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체 가운데 자금난이 심각한 경우를 대상으로 업체당 7억원이내의 운전자금(경영안정자금)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서 3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고.
- 2. 18 : 생기원,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, 공업발전기금,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기술개발정책자금의 경우 개발과제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지원범위가 중첩돼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, 자금분배방식을 기술분야나 개발단계별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.
- 2. 18 : 공진청, 올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468개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선정했다고.
- 2. 18 : KAIST, 퍼지 칩 8개에 128개 프로세서를 대응시켜 기존의

- 486퍼스컴 보다 계산속도가 240배 정도 향상된 퍼지컴퓨터를 개발했다고.
- 2. 20 : 중진공, 중소기업체의 생산시설자동화나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사업자금을 대명금속 등 18개 업체에 54억 1,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.
- 2. 23 : 상공부,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.
- 2. 23 : 공진청, 일류화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들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「일류화상품 품질기준」을 확대 제정키로 했다고.
- 2. 25 : 체신부, 게임기의 전자파를 측정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일으켜 EMI검정대상기기로 고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.
- 2. 26 : 공진청, 백열전구 등 39개 품목을 수출검사에서 제외,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수출검사 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재킷, 타월 등 23개품목, 보온용기 등 4개, 백열전구 등 전기전자 6개, 장갑 등 잡화류 6개 등으로 제외키로 했다고.
- 2. 28 : 공진청, 국내 중소기업에 국제품질보증체계인 ISO-9000 시리즈의 보급을 확대키 위한 방안으로 기술선진화기업 상품, 일류화 기업 등 유망중소기업, 600개사를 선정 4월부터 KSA·ISO-9000시리즈에 대한 진단지도를 실시키로 했다고.